

보도일시 (인터넷) 2023. 11. 6.(월) 11:00,  
(지면) 2023. 11. 7.(화) 조간

배포 2023. 11. 6.(월) 06:00

## ‘진도·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 지정

- 원시어업 형태로 현재까지 이어져 온 유산으로서의 가치 인정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11월 2일 진도·신안군 도서지역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로 지정했다.

진도·신안군 도서지역의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은 옛 선조들의 원시어업 형태 그대로 이어져 왔다. 지역주민들은 미역 채취장소를 ‘곽전(미역 곽(藪), 밭 전(田))’이라고 부르며 미역을 밭에서 경작하는 작물로 보고 미역밭 갯닢기와 물주기를 시행\*하고 있고, 미역을 채취할 때는 ‘미역낫’만 사용하고 있다. 이 어업방식은 어민들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이어져 내려온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 (갯닢기) 밭농사에서 호미로 잡초를 제거하듯, 미역밭에서도 가래나 딱가래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잡초류를 제거 / (물주기) 밭에 물을 주듯 어린 미역이 녹지 않도록 수분 공급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어업활동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 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고유한 경험·지식·기술체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 8개 항목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 최종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만들어져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해 왔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3년간 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속가능한 어업으로서 보전·관리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 온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어업의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 장	김정화 (044-200-5651)
		담당자	사무관	김은희 (044-200-5659)

## 참고 1

## 진도·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

유산 명칭	진도·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
위 치	전남 진도군 조도군도, 전남 신안군 흑산군도 일원
면 적	250km <sup>2</sup> (조도군도 및 흑산군도 일원 마을별 제1종 공동어장)
개요	원시어업 형태로 미역을 밭에서 경작하는 작물로 취급하여 미역밭 갯닦기와 물주기 등 서식지 관리로 미역을 채취하는 어업활동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을 경작해 온 어민들의 오랜 경험에 의한 토착 지식에 의한 것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었음</li> <li>•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과 관련한 고유한 경험과 채취지식, 분배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특한 어업문화를 계승 보전함</li> </ul>
 	
미역채취	채취한 미역 이동
 	
미역밭 갯닦기 작업	미역밭 물주기 작업

## 참고 2

##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현황

연번	유산명칭	지정일시	대상 지역	특 징
제1호	제주 해녀어업	'15.12.21.	제주도 전역 (14,346ha)	해녀들이 특별한 산소 호흡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
제2호	보성 뽕배어업	'15.12.21.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일대(35km <sup>2</sup> )	썰물 때 뽕배를 타고 나가 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꼬막을 채취하는 어업
제3호	남해 죽방렴어업	'15.12.21.	남해군 삼동·창선면 지족해협 일대 (537.2ha)	좁은 바다의 물목에 대나무로 만든 그물을 설치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업
제4호	신안 갯벌 천일염업	'16.10.31.	신안군 천일염전 일대(29.7km <sup>2</sup> )	햇빛과 바람을 이용 자연방식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천일염을 생산하는 어업
제5호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	'17.12.1.	완도군 고금면 청용가교 봉명리 일대(358ha)	갯벌에 지주목을 세우고 발을 설치하여 김을 생산하는 어업
제6호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18.11.30.	무안 탄도, 신안 선도 일대(118.35km <sup>2</sup> )	맨손 또는 낙지잡이 전용 삽인 가래삽을 이용해 낙지를 잡는 어업
제7호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18.11.30.	하동군, 광양시 섬진강 하류 일대(140ha)	기수역에서 거렁이 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재첩을 채취하는 어업
제8호	통영·거제 견내량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	'20.07.06.	통영·거제 견내량 해협 일대 (63.6ha)	트릿대라는 긴장대로 물속의 바위에 붙은 미역을 감아올려 채취하는 어업
제9호	울진·울릉 돌곽 떼배 채취어업	'21.03.08.	울진·울릉 돌곽 채취 유역(39.79km <sup>2</sup> ),	오동나무 등을 뗏목처럼 엮어 만든 배로 돌곽(돌미역)을 채취하는 어업
제10호	부안 곰소 천일염업	'21.09.02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일대(5.4km <sup>2</sup> )	햇빛과 바람을 이용 자연방식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천일염을 생산하는 어업
제11호	신안 흑산 홍어잡이어업	'21.09.03	신안군 흑산도 일대 연근해어장(6901.4km <sup>2</sup> )	미끼를 사용하지 않는 주낙을 홍어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하여 잡는 어업
제12호	경남 거제 송어 망쟁이 들망어업	'22.08.16	거제시 6개 어촌계(도장포, 양화, 학동, 선창, 다포, 다대)(69,340m <sup>2</sup> )	망쟁이가 송어 떼의 이동 흐름을 읽고, 들망을 이용해 송어 떼를 가두어 잡는 전통 어업방식

### 참고 3

##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

구 분	항 목	세부 기준
1. 어업 유산의 특징	식량생산 및 생계유지	○ 어업활동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의 보존·증진에 기여하고 있을 것
	지식체계	○ 어업유산 관련 고유한 경험·지식·기술체계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전통문화	○ 어업유산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어업문화 및 사회조직을 형성하였으며, 그 문화가 미풍양속으로 보존·계승할 가치가 있을 것
	경관형성	○ 어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경관이 주변 어촌마을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것
	역사성	○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어업활동으로 현재에도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2.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참여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가 보전계획 수립, 조례 제정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실행평가·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을 것</li> <li>○ 지역주민이 활동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등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li> </ul>